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세 가지 권면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 끝에 언급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곧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다. 천국은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전도의 열매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사랑스런 빌립보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그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였다. ‘서라’는 원어는 ‘굳게 서라’는 뜻을 가진다(KJV, NASB, NIV).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은 주의 진리 곧 이신칭의(以信稱義)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의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완전 성화를 향해 충실히 노력해야 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이다. 성도들은 ‘주 안에’ 곧 주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주님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에, 주님의 교훈을 순종함에, 주님을 소망함에, 주님께 대한 충성에, 주님의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움에 굳게 서야 한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권면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했다. 고린도전서 16:13, “개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갈라디아서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골로새서 2:7, “그 안에[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보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빌립보교회는 좋은 교회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도 서로 생각이 맞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2:2-3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성경의 일치된 교훈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본문이 보이는 두 번째 권면이다.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멍에를 같이한 자’라는 원어(쉬취코스 σύζυγος)는 ‘멍에를 같이한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쉬취코’라는 사람 이름)일지도 모른다(NIV 난외주). 그는 빌립보교회를 대표할 만한 감독 중 하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복음 사역에 함께 수고한 자이었던 것 같다. 또 빌립보교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힘

졌던 여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또 클레멘드와 그 외의 그의 동역자들을 말한다. 그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람의 구원은 그의 행위를 통해 확증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의 일꾼들을 도우라고 말한다. 이것이 본문이 보이는 세 번째 권면이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도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위로자이시며 격려자이시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사역자들에게 힘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11-13, “그러므로 피차 권면[위로, 격려]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다. 기도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줄 수 있는 매우 큰 도움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셋째로, 우리는 물질로 도울 수 있다. 복음의 일꾼들은 세상의 일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자들이다. 교회의 전임(專任) 사역자들은 교회 일에 매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을 물질로 도와야 한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0-42).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주의 진리 곧 이신칭의(以信稱義)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의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완전 성화를 향해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 곧 주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주님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에, 주님의 교훈을 순종함에, 주님을 소망함에, 주님께 대한 충성에, 주님의 바른 진리를 변호하

기 위한 선한 싸움에 굳게 서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각 사람의 개인적 견해를 버리고 신구 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한 일치된 교리 사상과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버리고 오직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로,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위로와 격려의 말로 도와야 한다. 또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도와야 한다. 또 그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물질로 도와야 한다.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계 3:1]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나타내신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자 곧 성령과 본질적으로 일체가 되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지식, 또 그의 통찰력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

주께서는 사대 교회의 목사의 행위를 아셨고 그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를 판단하셨다. 우리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혹은 불완전한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주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그의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다. 사람의 말은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고 심지어 위선적일 수도 있으나, 사람의 행위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시지만, 특히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신다.

사대 교회 목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다. 그와 그의 교회는 사람들의 보기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활동적이라는 것이 교회가 건전하다는 표시는 아니다. 이단들도

매우 열심이 있고 이방종교인들이나 공산주의자들도 그러하다. 열심이 있다는 것이 진리를 소유한 표시는 아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나, 어떤 성질의 열심이나가 중요하다.

사데 교회의 목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이었다. 죽었다는 말은 영적 의미이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었다고 간주되었다는 말이다. 그의 활동은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지 못했다. 의롭고 선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보기 어렵다. 의롭고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을 보면, 사데 교회의 목사는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에게 죽게 된, 죽어가고 있는 남은 바가 있었다. 그것은 복음 신앙의 뿌리이었거나 중생했으나 연약한 생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죽을 처지에 있었다. 그 남은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목사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행위의 온전함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의 온전치 못함은 불경건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행위를 가리킬 것이다. 사데 교회의 목사에게는 행위의 온전함이 없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성도가 받았고 들었던 바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이다. 사데 교회의 목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해야 하였다.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다. 과거의 기억은 유익하다. 특히 구원의 기억이 그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평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찬송가 405장).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켜 주주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오늘과 내일의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 그러나 주께서 이

렇게 말씀하셔도 그 목사가 일까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며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4절]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목사의 영적 상태를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데 교회는 달랐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사데 교회는 목사가 영적으로 죽은 자이었으나, 그 교회에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자들이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흰옷은 순결을 의미한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흰옷이며 그를 믿는 속죄신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성도는 그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르고 선한 일을 힘쓴다. 그러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저버렸고 해이해졌고 죄의 낙을 누렸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였다.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다.

[5-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시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흰옷 입은 목사, 흰옷 입은 직분자들,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의 수에 들어야 한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흰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흰옷을 더럽히는 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이다. 교인들은 산 자와 죽은 자, 흰옷 입은 자와 흰옷을 더럽히는 자,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

흰옷 입은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주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이름을 흐린다’는 말은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뜻이다. 주님만 바라고 죄를 대항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의 구원은 확실하여 주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흰옷을 더럽히는 자들 곧 죄를 짓는 자들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말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며 그가 구원을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헛

된 소망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행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양이나 이름이나 평판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참 믿음과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 사대 교회의 목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죽은 자 혹은 죽어가는 자이었다. 우리는 그런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실제의 인격과 삶이다.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잘 파악하고 굳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받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들을 다 믿고 보수하고 그것들에 합당한 경건하고 바르고 선한 행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현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굳게 붙들고 지켜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의의 흰옷을 입은 자는 그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또 그 복음 신앙에 합당한 거룩과 의의 생활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수요일 설교

책망과 명령

[학 1:1-6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에스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파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주전 536년경)(스 3:8) 그 땅에 거하던 대적자들의 방해로 그 일이 약 15년간 중단되었었다(주전 521년까지)(스 4:24). 사람들은 아파 마음이 위축되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 집을,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복으로 누리지 못하였으며 돈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같이 되었다고 지적하셨다.

[7-11절]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는 그 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구약성도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만들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 손이 빨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았던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랐으나 적었고 또 그들로 인해 가뭄을 불러 하늘과 온 땅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은 것은 큰 죄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5, 7절). 그들은 그들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불경건과 세속적임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했다.

[12-15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 대로 그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시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심령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심령과 남은 바 모든 백성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분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전 건립의 일을 다시 시작케 하셨다. 그 성전은 주전 521년에 다시 시작하여 주전 517년에, 즉 다시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준공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마 6:33), 또 가족보다,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하셨고(마 10:37-38), 심지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의 제자가 된다고 표현하셨다(눅 14:33).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세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전대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지 않도록(6절)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아야 한다(5, 7절). 믿음 없는 삶은 무슨 복을 얻은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돈처럼 없어지고 각종 육체적,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피할 수 없는 헛된 삶이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해야 한다(마 28:20; 요 14:16).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 개인의 신앙의 건립도 그러하고 또 교회 봉사의 일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신다.